

광주·전남 학교 교권침해 연평균 232건

교육부 국회 제출 자료...장애인 학생 학폭 피해도 급증

광주·전남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육성과 폭행은 물론 성희롱까지 당하는 교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폭력 피해를 입는 장애인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전남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는 1162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연간 평균

232.4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광주에서는 ▲2014년 243건 ▲2015년 136명 ▲2016년 92명 ▲2017년 163명 ▲지난해 63명 등 5년간 697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89건 ▲99건 ▲90건 ▲85건 ▲102건 등 465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5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1만 5103건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1만 4506건, 학부모나 동료 교원 등에 의한 침해는 597건이었다. 폭언·욕설이 8834건(58.5%)으로 주를 이뤘고, 수업 방해

2670건(17.7%), 성희롱 604건(4.0%), 상해·폭행 539건(3.6%) 등이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동을 호소하는 교사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의 치유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자는 정식 운영에 들어간 2017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광주 1181건, 전남이 162건이었다. 여기에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 폭력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장애 학생 폭력 피해는 2014년 11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5년 사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2014년 1명에서 2015년 7명, 2016년 9명, 2017년 12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25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도 10명→9명→20명→37명→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기용 기자 pboxer@



추억의 충장축제 내달 2일 개막 23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거리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배우들이 1970~1980년대 복고풍 의상을 입고 다음달 개막하는 '추억의 충장축제'를 알리고 있다. 올해 축제는 '추억, 세대공감'을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닷새간 펼쳐진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영암~순천 고속도로 일부 구간 포장공사 27일까지 통행 제한

영암~순천간 남해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포장공사가 진행돼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영암 방향 남해고속도로 남순천 톨게이트 인근(영암 기점 97.56km)에서 2차로(길이 1.05km) 교통소통이 5일간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통제한은 남순천 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 2차로 포장 개량공사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간은 오는 27일 오후 8시까지 차단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해당구간에 교통정체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안전관리자 등 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남구 생태전문가 양성 환경교실 수강생 50명 모집

광주시 남구는 "생태문화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환경교실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남구는 오는 26일까지 '2019 환경교실 생태문화 자원 활동가 양성 교육'에 함께 할 수강생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 교육은 오는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론 교육과 현장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생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남구 주민이고 교육 이수 후 생태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아동학대 5년간 5배 늘어...전국 최고 증가율

전남도 5년간 5774건 발생 재학대율도 10% 달해 심각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최근 5년(2014~2018년)간 82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

한 아동학대 건수는 8만 7413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5년간 253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으며, 전남은 같은 기간 5774건이 발생했다. 광주는 2014년 164건, 2015년 253건, 2016년 346건, 2017년 796건, 2018년 973건을 기록하며 매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재학대는 2014년 16건, 2015년 26건, 2016년 33건, 2017년 46건, 2018년 59건으로 총 205건이었으며, 전남은 2014년 55건,

2015년 72건, 2016년 104건, 2017년 126건, 2018년 192건으로 합계 549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한 아동재학대율은 전국적으로 9.7%(8562건)였으며, 광주는 8%(205건), 전남은 8.7%(25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과 아동학대자와의 관계로는 부모가 7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학교 교사(5%), 친·인척(4.6%)이 뒤를 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1 해질 18:28 달뜨기 00:42 달지기 15:48

아침 쌀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 | | | | |
|----|----|-------|-----|----|-------|
| 광주 | 맑음 | 14/26 | 보성 | 맑음 | 9/25 |
| 목포 | 맑음 | 16/24 | 순천 | 맑음 | 15/27 |
| 여수 | 맑음 | 18/24 | 영광 | 맑음 | 13/25 |
| 나주 | 맑음 | 12/26 | 진도 | 맑음 | 11/24 |
| 완도 | 맑음 | 15/26 | 전주 | 맑음 | 14/25 |
| 구례 | 맑음 | 10/26 | 군산 | 맑음 | 13/25 |
| 강진 | 맑음 | 11/26 | 남원 | 맑음 | 12/25 |
| 해남 | 맑음 | 9/25 | 흑산도 | 맑음 | 17/22 |
| 장성 | 맑음 | 11/25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안바다 | 북서~북 | 0.5 | 북서~북 | 0.5 |
| 남부안바다 | 북서~북 | 0.5~1.5 | 북~북동 | 0.5~1.0 |
| 안바다 | 북서~북 | 0.5~1.0 | 북~북동 | 0.5~1.0 |
| 남해안바다(동) | 북서~북 | 0.5~1.5 | 북~북동 | 0.5~1.5 |
| 남해안바다(서) | 북서~북 | 1.0~2.0 | 북서~북 | 1.0~2.0 |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중음: 미세먼지

◇물때

| 목표 | 간조 | 만조 |
|----|-------|-------|
| | 03:01 | 09:11 |
| 여수 | 14:57 | 22:24 |
| | 10:52 | 04:51 |
| | --:-- | 17:51 |

◇주간 날씨

| 25(수) | 26(목) | 27(금) | 28(토) | 29(일) | 30(월) | 10/1(화) |
|-------|-------|-------|-------|-------|-------|---------|
| ☀ | ☀ | ☁ | ☁ | ☁ | ☁ | ☁ |
| 15/26 | 16/27 | 18/25 | 19/26 | 19/27 | 18/27 | 17/27 |

전남대병원 낮병동 운영...오전 입원 오후 퇴원

안과 등 5개과 우선 도입

전남대병원이 '오전 입원, 오후 퇴원' 가능한 낮병동(Day Care Center)을 운영한다.

'낮병동'은 하루만에 입·퇴원이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시술 및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원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이다.

전남대병원은 23일 병원 3동에서 이삼용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간부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낮병동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대병원은 우선 안과·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성형외과·비뇨기과 5개과에 15병상을 운영하며, 해당 과와 병상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간단한 시술 및 수술을 받기 위해 며칠씩 기다리거나 불가피하게 2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입퇴원 수속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됐다. 이로써 환자에게는 치료 비용 절감과 병원체류 시간 감소 효과가 있으며, 병원으로서도 입원 적체현상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병상운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환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낮병동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중소기업 취업 고교생에 300만원 지원...오늘부터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는 고교생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접수를 24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내년 6월 이전에 취업할 예정인 직업계고 또는 일반고 위탁과정 3학년 학생은 장려금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받을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180일) 동안 취업을 유지해야 한다. 작년에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이용업 취업자도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019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국민과 함께한 30년,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2019. 9. 26(목) 13:00 ~ 16:00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주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주관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 후원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